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58호 【루계 제25501호】 주체105(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창건 41돐에 즈음하여 당신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에게 훌륭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세계정세가 복잡다단하게 변화발전하고있지만 라오스와 조선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훌륭한 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 두 나라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리익을 가져다주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친선, 협조관계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이 기회에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냥 워라찟

2016년 12월 5일 비엔티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이 22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적인 기층당조직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완벽하게 구현하시여 우리 당을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당, 혁명의 강위력한 참모부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그들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의 개척자, 령도자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만년재보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며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발휘하였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안아온 결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전기기관차제작전투목표 점령, 전기기관차 및 객차수리 지표별 년간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완수

지난 70일전투기간 당이 제시한 목표보다 전기기관차를 더 생산하여 당 제7차대회에 빛나는 로력적선물로 드린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 13일에 총정의 200일전투 전기기관차제작목표를 또다시 돌파하고 전기기관차수리, 객차수리 등 모든 지표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70일전투기간에 빛나는 위훈을 창조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200일전투에 들어와서도 화선식정치사업을 맹렬히 벌리고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현장로동계급속에 들어간 당, 행정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정신을 깊이있게 해설해주고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대중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이 총폭발되여 일터마다에서 거세찬 혁신과 비약의 불길이 타올랐다.

기관차본체제작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것과 동시에 소재, 주물, 가공 등 모든 공정마다에서 전기기관차부속품생산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졌다.

주물직장 로동계급은 모든것이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높은 재질을 요구하는 저항편, 압축기부속품 등을 원만히 생산할수 있는 새 기술을 창안하고 생산에 도입하여 전기기관차부속품소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1, 2, 3가공직장들에서 련속 새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하며 전례없는 부속품가공속도를 창조하였다. 특히 대형부속품가공을 맡은 1가공직장에서는 70일전투때보다 가공속도가 훨씬 높아지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차바퀴와 같은 가공품은 지난 시기같으면 4일에 한대분씩 생산하는것도 기적적인 성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200일전투기간 직장에서는 3일 남짓한 기일에 두대분에 해당한 차바퀴를 가공하는 놀라운 속도를 창조하였다. 전인전동기본체가공도 보름에 하나씩 하던 판례를 깨버리고 5일에 하나씩 하여 20일 남짓한 기간에 전기기관차 5대분에 해당한 전인전동기본체가공을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천존 보링반에서는 전인전동기본체를 가공할수 없다는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고 고정된 테불우에서 본체소재의 합리적인 좌표를 잡아 끝끝내 전인전동기본체를 훌륭히 가공해내고야말았다.

2, 3가공직장 로동계급도 가공속도를 높일수 있는 지구들을 수많이 창안도입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가공속도를 70일전투때보다 두배로 높이였다.

기관차조립직장에서는 기관차조립전투를 립체전으로 밀고나가는 과정에 차바퀴쌍조립과 대차차입, 총차입속도를 지난 시기 16시간으로부터 8시간으로 줄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객차직장, 전기기구직장, 장비직장, 공무직장, 자력갱생직장 등 모든 직장들에서 70일전투기간에 창조된 귀중한 경험에 토대하여 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집단적혁신으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객차직장 로동계급은 객차수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서로 돕고 이끌며 혁신적인 작업방법을 탐구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당이 맡겨준 객차수리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200일전투기간 련합기업소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전기기관차의 심장부인 전동기생산에서 국산화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70일전투기간에 와니스에 의한 절연불함침시간을 58시간으로부터 24시간으로 줄여 전동기제작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전동기공장 로동계급은 200일전투기간에 련합기업소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경화제를 개발하여 그 시간을 16시간으로 줄이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아니라 전동기제작에 리용되던 자재를 국산화하여 전동기생산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였다.

조건은 어렵고 제기되는것은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또다시 이룩한 승전소식은 당 제7차대회정신을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 있다.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한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만리마속도로 더욱 질풍같이 내달려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 기어이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고성능공기려과장치의 국산화 실현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첨단기술제품인 고성능공기려과장치의 국산화를 실현하였다.

고성능공기려과장치는 병원을 비롯하여 높은 위생성을 요구하는 보건 및 위생부문 등에서 공기속의 균이나 먼지로 인한 감염과 오염을 막기 위한 첨단수준의 공기정화장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미 일정한 토대가 있고 전망이 확고한 연구대상들에 힘을 넣어 세계패권을 쥐며 그 성과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수술장 등에서 쓰이는 고성능공기려과장치에서 핵심은 고성능공기려과종이이며 그 기술적지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기속의 오염물에 의한 감염을 철저히 막고 의료상치료효과를 높일수 있는 무균성이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속의 먼지를 높은 효률로 제거하여 무진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통기성도 좋아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소장 박사 부교수 리영일동무를 비롯한 종이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병원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고성능공기려과장치를 국산화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수지를 가지고 만든 나노섬유를 기본원료로 하고 여기에 클적섬유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천연섬유를 배합하여 고성능공기려과종이를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리하여 실장 로영철동무를 비롯한 일용품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짧은 기간에 그 질적지표에 있어서 세계적수준에 도달하는 3층구조를 가진 고성능공기려과종이를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이 려과종이를 리용하여 현재까지 제일 발전된 형태인 격리판이 없는 고성능공기려과장치를 연구제작하였다. 이 장치는 격리판이 있는 려과장치에 비하여 려과효률이 더 높을뿐아니라 훨씬 가볍다고 한다.

연구사업과정에 과학자들은 무균, 무진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장소들에서 쓰이는 고성능공기려과장치에 리용되는 려과종이의 기술적지표를 확정하였다. 또한 첨단재료인 나노섬유와 천연섬유를 배합하여 첨단수준의 고성능공기려과종이를 제조하고 이 종이에 천연살균제를 첨가하여 장치사용과정에 부착된 세균에 의하여 일어날수 있는 려과종이의 오염을 막고 려과된 공기의 무균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장치를 조립 및 제작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연구소에서는 그쯘하게 꾸려진 기능성종이생산공정에서 첨단수준의 고성능공기려과종이를 제조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세균이나 먼지와 같은 오염물에 대한 포집률이 매우 높고 수명이 긴 고성능공기려과장치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정경철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의 일군들과 국가과학원과 해당 단위의 일군들이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잘 떠밀어주었다.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에서 제작한 여러대의 고성능공기려과장치들은 현재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 도입되여 은을 내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년간 석탄생산계획 넘쳐 수행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여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기간에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비약의 열풍을 일으키도록 년초부터 일군들과 탄부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당위원회일군들은 탄광들, 막장들에 나가 탄부들과 함께 일도 하고 접린 문제도 풀어주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주었다. 일터마다에서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이 강화되고 직관선전물들, 속보판들이 련이어 나붙어 련합기업소의 전투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들끓는 탄광들을 맡고 내려가 석탄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정과 정황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갔다. 특히 석탄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채탄장을 늘이는데서 찾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전망이 좋은 새 탄맥을 마련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의 일군들은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모든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룡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렸다. 일군들은 높이 세운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하여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드는 한편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탄부들의 열의를 부쩌 높여주었다. 탄부들은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면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치렬한 증산투쟁이 벌어지는 속에 전차갱과 청년갱을 비롯한 탄광안의 모든 갱들에서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삼천탄광과 천내탄광에서는 전망이 좋은 채탄장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하여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일군들과 탄부들은 갱막장마다에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매일 자기들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밑에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평양가방공장이 현대적으로 훌륭히 완공

평양시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학생가방을 비롯한 여러가지 가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평양가방공장이 완공되였다.

평양가방공장이 불과 반년도 안되는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서게 된 이 자랑찬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 불타는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평양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입니다.》

지난 7월초 부지확정과 설계를 짧은 기간에 결속한 시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로력과 자재, 중기계들을 집중하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날부터 치렬한 격전을 벌리였다. 그들은 근 6 000㎥의 건물철거와 7 000㎥의 잔토처리를 불과 한주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해제끼고 13개 건설대상에 대한 기초굴착과 기초콩크리트치기, 벽체축조와 층막콩크리트치기를 본때있게 다그쳐 골조공사를 단 20일만에 해제끼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장에 수천t의 세멘트와 수만㎥의 흙석, 수백t의 강재를 비롯한 많은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수시로 건설현장에 나와 건설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되도록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며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대책해주었다.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높아가는 공사속도에 맞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시공지도에 힘을 넣었다.

시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 락랑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장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건설이 시작된지 90일만에 총공사량의 85%를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건설이 끝나는 즉시 생산에 들어갈수 있게 설비구입과 제작도 적극 따라세웠다. 국가과학원 메이자연구소와 평양방직기계공장을 비롯한 10여개의 해당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짧은 기간에 페이자제단기를 비롯한 수십종에 수백대의 설비구입과 제작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새로 건설한 가방공장에서 일할 수백명의 로동자들을 평천가방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 기술전습시켜 그들이 빠른 기일안에 능력있는 기능공으로 준비하도록 미리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현대화된 평양가방공장에서는 지금 학생가방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질좋은 가방들을 팡팡 생산할 만단의 준비가 끝났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업적 영원불멸하리

영원한 충정의 해발

지금으로부터 99년전 12월 24일, 이 나라 북변의 강 두만강가에 자리잡은 희령 오산덕기슭의 작은 초가집에서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시였다. 말이 집이지 자기 초가도 아닌 비좁은 남의 집 곁방에서 강도 일제의 쇠사슬에 휘여감긴 민족수난의 그 시기에 탄생하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오실 때에는 이처럼 조용히 오시였지만 성스러운 조선혁명사와 세계군전설사에 특출하고 영원불멸할 업적을 남기신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별처럼 무궁토록 빛나시는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정숙동지,

영원한 충정의 해발, 이는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의 만년대를 창창히 열어놓으시였을뿐아니라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과감히 추동하고 계시는 김정숙동지께 드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경의이다.

* *

혈도성혁명사적관을 찾는 사람들은 정히 보존되여있는 류다른 유개화차를 볼수 있다.

일명 짐차라고도 하는 이 유개화차앞에서 어쩌하여 사람들은 쉬이 발걸을 떼지 못하고 경건한 추억에 잠기는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에서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해방된 해의 12월 24일과 더불어 있었던 귀중한 사적을 적으려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의 한생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한생, 혁명을 위한 투쟁의 한생,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한생이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어머님의 한생은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어머니의 한생이였으며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의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항일의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치시고 사랑하는 조국에 개선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관철에로 함경북도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던 김정숙동지,

그이께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청진을 떠나게 되신것은 해방된 그해도 다 저물어가던 12월 22일이였다.

김정숙동지를 모실 렬차를 구하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사 박영순동지가 종일 뛰여다니였지만 낡은 유개화차밖에 없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온 그는 김정숙동지께 날자가 좀 걸리더라도 객차가 해결된 다음에 떠나는것이 어떤가고 말씀올리였다.

《산에서 싸울 때 눈우에 가랑잎을 깔고자던 우리들인데 화차라고 나무람하겠습니까. …이런 화차라도 타고 갈수 있게 되였으니 다행입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좋은 객차를 타고가겠다고 더 있을수는 없습니다.》

그이의 결심은 이처럼 단호하시였다.

역구내는 환송나온 사람들로 말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정숙동지께서 근 한달에 걸치는 나날 정과 열을 나누신 도안의 일군들과 군중이였다. 석별의 정을 감추지 못하고 손과 손들을 마주잡고 놓지 못하는 가운데 기차는 드디여 출발하였다. …

처음 기차가 멎은 곳은 명천이였다. 흰눈이 발목을 넘게 쌓인 그날은 12월 23일이였다.

쏟아지는 눈속에 몸을 맡기신 김정숙동지께서 해빛같이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좋은 눈이 내렸어요. 옛날부터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했는데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조국땅에 만풍년이 들라고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군요. …

김정숙동지의 일행은 아침밥을 짓기 위해 물을 길러 나섰다.

한 농가앞에서 우물을 찾았다. 처마밑에 드레박이 걸려있었다. 동행한 녀투사가 드레박을 벗기려고 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인집이 제여나면 량해를 구하고 쓰자고 조용히 타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비자루를 잡고 뜨락과 우물주변의 눈을 말끔히 쓰시였다.

그 고결한 풍모를 우러르는 녀투사의 가슴은 군중규률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이의 풍모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마침내 잠을 잔 우물집내외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누구나 마음대로 쓰라고 걸어놓은 드레박도 벗겨쓰지 않고 장시간 눈을 쓸며 기다리신 사정을 안 우물집녀인은 《세상에 이런 귀인이 계시다니…》 하며 좋곤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윽고 우물가에 동네녀인들이 모여들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몸소 그들의 물동이에 물을 채워주시면서 사는 형편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우물집녀인의 기막힌 생활사를 들고계시던 김정숙동지의 눈앞에는 오산덕의 메마른 돌밭을 힘겹게 가꾸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눈물겹게 어려왔다.

수수 몇이삭때문에 당한 수동마을에서의 제난, 일제놈들의 《토벌》에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고 기어이 원쑤를 갚을 일념으로 유격구로 들어가시던 엄혹한 그 나날들…

녀인의 다난사는 곧 김정숙동지자신의 체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방된 오늘 그것은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인의 손을 륙잡으시고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였으니 이제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하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든 사람들이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서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개선연설내용을 해설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해방이 좋다고 만세만 부를것이 아니라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좌 그렇게 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동네녀인들의 모습을 보는 동행한 녀투사의 눈앞에 우렛이 떠올랐다. 부암동의 첫 녀성공청원으로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동지께서 태양의 해발을 한몸에 안으시고 바로 이날처럼 마을사람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벌리시던 나날들이…

갓 창건된 유격구를 지켜싸우시며 인민들을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시던 처창즈의 나날, 장백현 도천리의 마을사람들속에서 지하공작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하시던 나날, 신파지구에 나오시여 조국광복회 조직을 국내깊이 확대하고 당조직을 내오시며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시던 나날, 만강에서와 무산지구에서 녀성들에게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해설해주시며 그들을 반일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시던 나날…

그 나날의 숭고한 모습을 이날 우물가에서 다시 목격하게 된 녀투사의 가슴은 참으로 뜨거웠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 만나신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돌아오시던 길에 개울가 얼음구멍앞에 조그리고앉아 토닥토닥 힘겹게 빨래를 하는 열네살잡이소녀를 보시였다. 4살 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고 지주집아이보개로 된 소녀, 해방은 되였지만 아직도 옛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소녀였다.

항일의 나날 친부모의 심정으로 유격구의 아이들을 돌보아주시던 그 마음으로, 마안산의 헐벗은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키워가시던 그 사랑으로 김정숙동지께서는 눈물범벅이 된 소녀의 광景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젠 나라가 해방되고 좋은 세상이 왔으니 이런 고생을 더 하지 않아도 된다. 의지가지 없다고 슬퍼말아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이시란다.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훌륭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팔소매를 걷어올리시고 소녀가 벌려놓았던 빨래감을 다 빨아 그릇에 담아 들려주시고도 그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차마 발걸을 떼지 못하시였다. …

그 나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잠간 머무르시는 곳마다에서 군중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시며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해놈들은 쫓겨가면서 모든것을 다 파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놈들이 얼마나 혹심하게 파괴하였는가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을것입니다. 우리는 파괴된 공장들을 복구하고 또 새로 건설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파괴된 모든것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공장을 복구하고 생산을 해내겠습니다!》

격동된 군중은 폭풍같은 호응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것을 결의해나섰다.

함경북도에서 사업하시던 나날과 기차로 나오시는 나날 어중이떠중이들이 제나름의 주의주장을 내걸고 군중을 우롱하고있는 사실을 꿰뚫어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동무들이 꼭 알아야 할것은 이 바람에 흔들리고 저 바람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만 일해야 합니다!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만 일해야 한다는것은 항일의 나날부터 김정숙동지께서 한시도 드티신적 없는 신조였고 투철한 의지였다.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김일성장군님은 태양이십니다. 그 어떤 바람도 구름도 저 하늘의 태양을 건드릴수 없듯이 그 어떤 원쑤도 우리 장군님께는 범접할수 없습니다!

사연깊은 유개화차앞에서 사람들은 오늘도 그 나날의 친위전사의 신념의 목소리를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드디여 12월 24일이 왔다.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에서 맞으시는 첫 생신날이였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말리는 유개화차에서 생신날도 잊으시고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로상이다보니 아무것도 베드리지 못한 녀투사들의 마음은 안타까왔다.

기차가 어느 한 역에 멎기 바쁘게 그곳 녀맹일군들이 차에 올라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일군들에게 로동자들속에 들어갈데 대한 문제, 녀맹조직을 더 많이 내올데 대한 문제, 새 조국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을 진지하게 토의하시였다.

해여지기 아쉬워 발을 동동 구르는 그곳 녀맹일군들과 뜨겁게 작별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길로 기관차운전실로 향하시였다. 기관사와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올라가도 일없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승무원들이 웃에 김댕이가 묻는다고, 그만두시라고 거듭 만류하였지만 그이께서는 성큼 운전실에 오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책임기관사를 보시며 우리 동무들가운데는 오래동안 산에서 일제침략자들과 싸우다보니 기차를 처음 타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전에 산에서 조국을 그리며 고향이야기를 하다가 기관차를 보고 물수레요, 불수레요 하면서 서로 싱갱이질을 하는 동무들도 있었다고 즐겁게 웃으시였다.

운전실안의 조작련계기들을 눈여겨 살펴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기관실에 들어왔던바에야 기적소리를 한번 울려보겠다고, 그래도 일없겠는가고 행복넘친 어조로 물으시였다.

순간에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그이의 인품에 매혹된 승무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어서 한번 울려보시라고 한목소리로 대답을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럼 한번 울려보자요라고 하시며 기적련손잡이를 지그시 잡아당기시였다. 우람한 기적소리가 대기를 흔들었다.

기적소리를 울려보니 가슴이 다 후련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기적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적소리를 들을 때면 우리는 그리운 고향과 조국을 생각하면서 하루속히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방된 조국땅에서 기관차에 올라 기적소리까지 직접 울려보고나니 정말 감개무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이의 눈가에 깊은 추억이 비껴흘렀다.

이윽고 조용하나 근엄하신 그이의 음성이 운전실에 울리였다.

산에서 함께 싸우다 희생된 동지들을 추모하여 기적소리를 한번 더 크게 울리자고 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 또다시 기적련을 당기시였다.

기적소리를 울리시는 김정숙동지의 눈가에 어느덧 뜨거운것이 고이였다.

이렇게 김정숙동지께서는 탄생 28돐이 되는 해의 12월 24일을 달리는 유개화차에서 보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력사적인 려정을 마치시고 평양에 도착하신 날은 12월 29일이였다. …

한 민족이 몇세기를 살아도 이룩할수 없는 영웅서사시적업적을 쌓으신 영원한 친위전사 김정숙동지,

떠나시는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을 위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으시고 김일성민족의 천만심장에 수뇌부결사옹위의 신념과 기둥을 억척으로 세워주신 영원한 충정의 해발 김정숙동지!

지금으로부터 9년전 12월 24일, 어머님에 대한 하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정숙동지의 공적에 대하여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의 한생은 혁명가가 자기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 하는 모범을 보여준 한생이였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우리가 어머님을 더욱 잊지 못하는것은 어머님의 한생이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신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충실성의 귀감이기때문입니다!

어머님의 한생은 길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한생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와 더불어 뜻깊은 사연을 안은 유개화차인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이 사적물앞에서 오래동안 발걸을 떼지 못하는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충정의 해발이신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목숨 바칠 불타는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는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9돐경축

전국풍경화 및 수공예품전람회 개막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9돐경축 전국풍경화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19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중심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상사진문헌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숭엄한 모습을 형상한 아크릴화 《만민의 축원》, 유화 《몸소 보초병이 되시여》가 보서저있다.

각지 미술창작가들이 내놓은 조선화, 유화, 수예, 공예품 등 14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람회장에 전시되여있다.

조선화 《오산덕의 겨울》, 《2월의 소백수》, 아크릴화 《청봉의 아침》, 《삼일포의 여름》 등의 작품들은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주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백두산3대장군의 기특한 자욱을 뜨겁게 되새겨보게 하는 조선화 《추억도 깊은 대동아학》, 《백두산천지의 칼바람》, 유화 《동오골밀영》, 《선군의 산악 오성산》, 아크릴화 《수양산성혁명사적지로 가는 길》 등의 작품들도 전시되였다.

조선화 《세포등판의 새 풍경》, 유화 《동해의 아침》, 《비약하는 평양의 저녁》, 아크릴화 《동풍원의 새 모습》, 판화 《녀동강반의 선경》, 수예 《물새들의 봄노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하는 만리마시대가 펼쳐진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도자공예품, 금속공예품, 뽈공예품 등도 전람회장에 전시되였다.

이날 문화예술부문 일군들, 애호가들, 시내근로자들, 대학생들이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전국풍경화 및 수공예품전람회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풋김은 추억을 불러오는 못 잊을 이야기

오미자가 《백미자》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은 일이다.

유격대에 입대하여 갓 작식대원이 된 녀대원은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 음식을 조리하실 때마다 말그대한 오미자가루를 두시는것을 보게 되였다.

그는 다섯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부른다는것은 알고있었으나 자기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가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며칠후 오미자를 재끗이 말리워 보드랍게 가루를 낸 그는 음식을 만들 때 넉넉히 두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였다.

똑같은 음식감에 오미자가루를 두었지만 김정숙동지께서 만드신 음식맛과 전혀 같지 않았다.

한참동안 생각을 굴린 녀대원은 김정숙동지의 조리방법대로 오미자가루량을 조절하며 새로 음식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다시 그를 실망케 하였다.

풀길 없는 의문을 안은채 김정숙동지께서 만드신 음식을 다시 맛본 녀대원은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녀대원의 마음속고충을 알게 된 대원들은 싱글벙글 웃음지으며 오미자도 김정숙동지의 손이 닿으면 《백미자》로 변한다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대원들이 주고받는 말을 새겨듣는 녀대원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시고 혁명동지들을 위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지성이 하늘에 닿았으니 어찌 그이께서 만드신 음식들이 백가지 맛을 내지 않을수 있으랴!…)

백리향

해방된 이듬해 봄날, 한 녀투사가 위대한 수령님의 지배에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녀투사는 손에 호미를 들고나서시는 김정숙동지를 뵈오며 어디로 가시는가고 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백리향을 더 떠다심으려고 해방산으로 간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뇌리에는 며칠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백리향꽃나무를 떠오기 위해 해방산에 올랐건만 아무리 산을 올리훑고 내리훑어도 찾을수 없어 종시 산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였다.

녀투사는 풀지 못한 의문과 호기심을 가득 안고 그이의 뒤를 따라 해방산으로 올랐다.

오솔길에 들어서신 김정숙동지께서 어느 한 바위목으로 다가가시였을 때였다.

그이의 뒤를 따르던 그는 그만 눈이 휘둥그래지고말았다.

바위아래에 한그루의 백리향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는것이 아닌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살펴보아도 그것은 분명 백리향이였다.

꿈 아닌 희한한 현실앞에서 녀투사는 분명 이 꽃나무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시는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마음에 감동되여 땅속에서 솟아오른것이라고 생각하며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뜻깊은 사연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일군들에게 우리 어머님은 해방후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꽃향기가 풍기도록 백리향을 심으시였다고 가슴뜨겁게 추억하시였다.

다시 정하게 된 인쇄순차

주체36(1947)년 여름 어느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생들의 교과서인쇄정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 인쇄공장을 찾으시였다.

그때 공장에서는 교과서인쇄가 잘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솔판물들을 맞물린 순차대로 인쇄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공장의 일군들로부터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된 지금 우리 일군들은 혁명을 위하여 일하고있다고, 그런것만큼 공장에서 인쇄순차를 마땅히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정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새 학년도를 앞둔 지금 교과서인쇄보다 더 긴급한것은 없다고 하시며 우리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으로 모두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였는데 새 학년도를 맞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미래를 귀중히 여기시며 나라의 후대교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백두산녀장군의 숭고한 모습을 뵈옵는 공장일군들의 가슴은 후렁게 달아올랐다.

그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쇄순차를 다시 정하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새 학년도전으로 교과서를 인쇄하였다.

본사기자 감철남

수필 어머님의 군복

언제인가 유서깊은 희령시의 오산덕기슭에 정중히 모셔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았을 때였다.

한 일군이 김정숙동지의 동상은 처음에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으신 모습으로 형상하였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형상하여야 어머님의 혁명생애와 잘 어울린다고 교시하시여 지금의 모습으로 형상하였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오늘도 항일전의 군복차림으로 계시는 김정숙동지의 기특한 모습을 우러르느라니 마음은 절로 숭엄해졌다.

백두산녀장군의 그 군복에 선군혁명의 길에 별처럼 빛나는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가 얼마나 소중히 어려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추억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가 여러해동안 치마저고리도 입고다녔지만 어째서인지 사복을 입은 모습보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무릇 군복은 땀만이 아닌 피를 바쳐야 하고 열정만이 아닌 생명을 내대야 하는 군인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는 전장에서 이름떨친 녀성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도 백두산녀장군처럼 군복을 입으신 숭고한 모습으로 만사람의 심장을 울려준 위대한 녀성혁명가, 녀성영웅은 없었다.

군복을 입으신 어머님의 모습!

우리 천만군민 누구나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새겨진 불멸의 영상이다.

항일전의 나날 군복차림으로 사시여서인지도 모른다. 그 군복을 입고 떨치신 전설같은 위훈의 이야기들이 하도 많기때문일수도 있다.

하나 어찌 그때문만이라.

백두산녀장군의 군복에는 그 어떤 장식이나 관등급표시가 따로 없다.

하지만 그 군복에 비낀 위훈의 세계는 얼마나 위대한것인가.

결사옹위의 방탄벽이 되여 적의 총탄을 막아나서신 대사하치기며 잘무목에서의 그 잊지 못할 불멸의 모습을 어머님의 군복은 다 말해준다.

한몸이 그대로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되여 원쑤격멸의 총성을 울리시던 백두산녀장군의 그 불같은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전설적인 호위장군의 기특한 위인상을 처음으로 뵈왔고 력사는 자기의 페지에 수령결사옹위의 첫장을 자랑스럽게 새겼다.

그때에 군복을 입고 권총을 차신 어머님의 모습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것이다.

백두산녀장군의 군복에는 다 어려있다.

늘 적탄이 비발치는 위험한 전장에서 싸움을 지휘하시는 사령관동지의 신변안전을 걱정하시며 힘겹게 얻으신 명주솜을 차곡차곡 모아 방탄벽과도 같은 명주솜외투를 손수 마련하신 위대한 녀성혁명가의 고결한 풍모, 고난의 행군시기 엄혹한 시련앞에 겁을 먹고 동면하려는 배신자들과의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켜내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에 대해 전해주는 청봉밀영이야기, 피어린 행군의 나날 어버이수령님의 젖은 옷을 몸에 안아 말리우시던 전설적녀성영웅의 모습…

정녕 우리 어머님의 군복은 보통군복이 아니였다.

바로 그 군복의 온기와 체취가 백두산장군을 희세의 선군령장으로, 사령의 화신으로 안아키웠다.

물론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군복차림만 하신것이 아니였다. 지하공작을 위해 입으시였던 치마저고리차림도 있었고 해방후의 수수한 정민차림도 있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순간이나마 군복차림때와 다른 자세로 사진찍이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사령부경위대원이였고 작식대원이였으며 재봉대원이시였다. 비록 군복은 벗었어도 백두의 설한풍을 헤치던 그 군복을 언제나 마음속에 입고계시였다. 그래서 어머님의 치마저고리차림도 선군혁명력사가 어린 빨찌산군복차림으로 안겨오는것이다.

우리 어머님도 녀성이시였다. 그이이시라고 왜 색갈이 곱고 훌륭한 장식이 있는 옷이 좋다는것을 모르셨으랴.

그러나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누구보다도 심장깊이 새겨안으신 그이이시기에, 인간사랑, 동지적사랑을 천품으로 타고나신 그이이시기에 오직 헌신만을 아시였고 그래서 땀만이 아닌 피를 내대야 하는 군복차림을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기꺼이 하신것이리라.

그렇다.

어머님의 군복에는 조국과 혁명에 대한 헌신의 가장 위대한 세계가 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력사가 세세년년 간직할 혁명가의 고귀한 한생, 세대를 이어가며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귀감이 그 군복에 어려있다.

허리에 권총을 차시고 216송이의 진달래꽃을 안고계시는 김정숙동지께서 백두산시절의 군복차림으로 지금도 조용히 웃고계신다.

항일선렬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어모시고 목숨바쳐 옹위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며,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을 축복하시며.

본사기자 김준혁

사연깊은 수첩

력사적인 남패자회의후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래간만에 만난 전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과정에 한 전투에서 어려명의 대원들이 희생된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동지들을 잃은 상실의 아픔을 가슴속깊이 새겨가시며 수첩에 그곳 지명과 희생된 혁명동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넣으시였다.

이윽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는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동지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혁명가의 응당한 도리로, 량심으로 간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나라가 해방되고 우리가 오늘을 옛말하면서 살게 될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는 대원들의 눈길은 그이께서 쥐고계시는 수첩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얼마나 하많은 사연을 담고있는 수첩이였던가.

참으로 그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의 세계가 소중히 담긴 항일대전의 기록장이기도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늘 수첩의 갈피를 번지시며 어떻게 하면 전우들이 남긴 자녀들을 한사람도 빠뜨리지 않고다 찾아 보살펴줄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시며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에게 친부모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서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기층당조직을 강화하는데서 중시한 문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오늘 우리 당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가 당의 의도에 맞게 초급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에서 하부지도체계를 똑바로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기층당조직들을 강화하는데서 우선 초급당위원장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이 《돌격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기수가 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2.8직동청년탄광에서 11명의 운반선로개건보수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낼데 대한 문제가 상정되였을 때였다. 탄광일군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럴만도 했다. 자재도 로력도 부족한 조건에서 생산을 밀고나가면서 선로개건보수공사를 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던것이다. 하지만 당위원장 정몽필동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공사과정을 초급당조직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자는것이였다.

그는 탄광초급당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자기 결심을 이렇게 표명했다.

《어려운 때 대중은 당일군들을 봅니다. 난 지금이야말로 우리 초급당일군들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켜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반선로개건보수공사를 통해 당에 대한 충직성을 검증받읍시다.》

그의 말은 협의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다시금 자각하게 했다.

탄광초급당위원장 리동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운반선로를 따라 걸으며 전차운전공들도 만나보면서 공사를 앞당겨 끝낼 방도를 가지고 토의를 거듭해나가는 과정에 침목과 레루만 해결되면 공사를 와닥닥 끝낼수 있다는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한몸 내대였다. 이에 고무된 공무직장의 로동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짧은 기간에 800여개의 레루못을 생산하여 공사장에 보내주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운반선로개건보수공사가 진척되는데 맞게 탄차의 실동대수를 늘이기 위한 전투에서도 앞제를 메고나갔다. 하루동안에 10대의 탄차가 수리되고 갱의 하루 석탄생산은 일약 수백t수준으로 올라가는 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초급당위원장이 사무실에 앉아 제기된 문제를 놓고 걱정이나 하면서 분서놓음으로 시간을 보냈더라면 과연 이런 혁신이 일어날수 있었겠는가. 역시 해당단위 사업의 성과는 초급당일군들의 주도적역할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였다. 특히 초급당위원장들의 역할이 높아지니 당조직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사업상권위도 서게 되였다.

이런 계기로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초급당위원장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떠밀어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였다.

강습과 경험교환회, 보여주기사업, 참관사업…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은 그대로 석탄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평대탄광이 석탄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으며 련합기업소는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진형단위가 되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게 되였으며 200일전투에서도 만리마속도를 창조하였던것이다.

초급당조직의 전투력은 초급당위원장들의 준비정도에 크게 달려있다.

당위원회일군들이 이 사업에 품을 넣게 된 동기가 있었다.

어느날 련합기업소당위원회 부위원장 오영수동무는 어느 한 아래단위를 돌아보았다. 초급당위원장사업을 갓 시작하였지만 단위실태와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을 손금보듯 환히 꿰들고있을뿐만아니라 생산정상화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가견을 가지고있는 그가 책임일군에게는 더없이 대견스러웠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물었을 때 그는 말문이 자주 막히군 하였다. 생각되는바가 있어 책임일군은 다른 단위 초급당위원장들도 만나보았다. 사정은 다른 일군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책임일군은 일부 초급당위원장들이 단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지만 응당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있는 주되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자기 분야의 과학기술지식이 부족한데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이로부터 당위원회는 초급당위원장들의 과학기술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초급당위원장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문제에 정통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갔다.

천성청년탄광 초급당위원장 리정길동무는 학위소유자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가이지만 그는 과학기술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당일군의 자격문제로 보고 이 사업을 꾸준히 하여왔다. 최근에 탄광에서는 어떠 대상들에 대한 삭도화를 실현하여 나라의 귀중한 전기를 절약하고 동력을 전혀 쓰지 않는 석탄먼지발생방지장치도 도입하여 먼지발생량의 95%이상을 방지함으로써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늘이였다. 그 발기자가 바로 탄광초급당위원장이다.

당위원회는 그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현지에서 조직하여 모든 초급당위원장들을 분발시켰다.

평대탄광 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안의 당일군들이 높은 과학기술실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란하게 풀어나감으로써 련합기업소가 200일전투에서도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곳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사업은 하부지도에서 초급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을때 모든 초급당조직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당조직,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당정책결사관철은 생명선

사리원방직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사리원방직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정책결사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사업을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전당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섰는가 하는것은 바로 당정책관철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6월초 직포종합작업반의 생산실적이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있을 때였다.

적지 않은 일군들이 객관적조건에서 원인을 찾고있었지만 초급당위원장동무는 생각을 달리하였다. 70일전투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일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는 전투적기질은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기를 잇고 수령결사옹위신념으로 언제나 심장이 고동칠 때만이 끊임없이 발현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초급당위원장은 직포종합작업반을 대상으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결부하여 더욱 심화해나갈 대책을 세웠다.

초급당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물론 초급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직포종합작업반에 내려가 격식없는 담화를 하면서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사명감을 자각시켜주는 정치사업을 첫입식으로 벌리였다.

70일전투때 남달리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여 잠시나마 랑개를 풀어놓고있던 작업반원들은 정신을 차리였다. 초급일군들과 당원들이 먼저 일떠서고 청년동맹원들을 비롯한 근로단체동맹원들이 그뒤를 따랐다.

작업장이 당중앙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전장으로 무궁 끓어번지는 속에 최지번생산실적이 쑥쑥 치달아오르고 총정의 200일전투목표는 매일, 매주, 매월 어김없이 돌파되였다.

전투의 불길속에서 작업반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진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받들어나가는 진짜배기실천가들로 억세게 성장하게 되였으며 직포공 김은하동무와 같은 6년분인민경제계획완수자까지 배출되였다.

공장의 어느 생산현장을 찾아도,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런 투쟁기풍을 엿볼수 있다.

공장의 생산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페이자에 의한 콤퓨터체본작도기를 새로 제작하던 과정도 그렇다.

실패가 거듭되자 기술자, 기능공들속에서 신심이 없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초급당위원회는 이것을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부족한것과 관련된다고 간주하였다.

초급당일군들은 기술혁신전투장에서 그들과 일손을 같이하며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영웅적인 실천으로 대답한 2정방직장 직장장 로력영웅 리옥선동무를 비롯한 전세대들의 불굴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에 대하여 감동깊이 들려주었다. 또한 작업반장 장영빈동무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뜨류머자수기들을 훌륭히 제작하여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실천으로 옹위한 사실도 되새겨주었다.

신념의 확고부동성은 성공의 위력한 추동력이였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은 그들은 기발한 착상을 내놓게 되였으며 끝내 문양고은 천들을 펑펑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놀라운 기술혁신실적도 실적이지만 종업원들의 성장은 이곳 초급당위원회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성과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 사업은 당정책결사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실천투쟁속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는데 선차적힘을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초급당위원회에서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일군들과 연구사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사업에 큰 힘을 넣어 과학연구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러면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사상사업에서 중시한 점은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은 당의 기본임무이며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입니다.》

몇해전 연구소초급당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명찬동무는 연구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연구소에는 10여명의 박사를 비롯하여 70여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다른 연구소들에 비해볼 때 대단한 과학기술력량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런데 연구사업에서는 응당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있었다.

초급당일군은 그 원인을 실무적인데서 찾지 않았다.

아무리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도 당에 대한 충실성이 부족하면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수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초급당일군은 일군들과 연구사들을 사상의 강자들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기로 하였다.

연구소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단위이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싸고드는것과 함께 모든 연구실들과 생산진풍, 생활구역을 령도업적단위답게 일신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사상의 강자들로 준비시켜나갔다.

1 000여㎡의 진풍지붕공사, 문화선전실개건보수공사와 함께 초미분생산기지, 정머리생산기지를 비롯한 청단생산기지들을 꾸려나가는 과정을 연구사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과정으로 되게 하였다.

연구소를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답게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는 나날에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과학연구사업에서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높아지는 혁명열의에 맞게 그들의 연구사업이 수령의 유훈관철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지난 시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연구사들의 연구사업과 그에 대한 총화평가를 유훈관철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다나니 일부 연구사들속에서는 연구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옳바로 선정하지 못하거나 실적을 올린다고 하면서 풀이 적게 드는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편향들도 나타났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연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깊이 연구하고 현실에 나가 그 관철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연구사업의 종자로 잡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연구사들이 선정한 연구대상이 그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인가를 따져보고 선후차를 옳게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사업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도 정치적의의가 있게 하도록 하였다.

이 나날에 일군들과 연구사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 이바지하는 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무조건 해제끼는 결사관철의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연구소에서는 올해에만도 많은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얼마전에는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새로 개발한 많은 량의 전기석물활성제를 보내주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이곳 연구소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일군들과 연구사들을 사상의 강자로 키울 때 과학연구사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이신작칙은 위력한 정치사업

◎ 청단군 양화리당위원회 일군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약하는 만리마시대는 초급당위원장들의 기수적역할을 비상히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청단군 양화리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단위사업의 성과는 전적으로 초급당위원장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양화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단위이다.

이 력사의 땅에서 최근에 기적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농장을 찾아와 그 비결에 대하여 묻고있다. 그러면 농장원들은 한결같이 리당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군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리안의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산등성이에 올랐다. 감격도 새로왔다.

주체89(2000)년 12월 18일,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농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지정리된 농장벌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이 산등성이에 오르시여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리당위원장의 뒤를 따라 자주 오르군 하는 곳이였지만 그날 이곳에서 진행된 모임에 참가한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리당위원장이 농사실적을 놓고 한해사업을 총화하고 자기가 꼴들여 세운 안들을 내놓았던것이다.

리자체의 힘으로 농장의 면모를 일신시키면서도 농사는 물론 당이 제시한 정책적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할 높은 목표였기때문이다.

그들은 리당위원장이 지난 몇달동안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색과 탐구를 하며 뛰고 또 뛰여왔는가를 다는 알수 없었다.

송순근동무가 이곳 리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여온것은 몇달전이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곳들을 돌아보면서 장군님의 유훈을 하루빨리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탐구하였다. 작업반들에 나가서는 직접 삽을 들고 직관선전방법도 가르쳐주고 풀베기전투때에는 전투장이 불쌔하게 오락회를 조직하였으며 가을걷이전투때에는 선동원들과 함께 힘있는 화선식경제선동을 벌렸다. 이렇게 바쁜 속에서도 그는 농장을 새워가며 리의 면모를 일신시킬 방도를 모색하고 도안도 그려나갔다. 군이나 도소재지에 갈 때에도 그렇고 먼 출장길을 다녀올 때에도 농사와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느라 끼니를 번질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고심어린 노력끝에 완성한 안들이였다. 모임참가자들은 구체적이면서도 명명백백한 리당위원장의 제의를 적극 지지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리당위원회의 결정으로 되였다.

다음날부터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전투가 끝나자 돌격대원들은 혁명사적교양실전실과 연혁소개실전실에 달라붙었다. 계급교양실을 비롯한 교양거점을 일신시키기 위한 전투도 동시에 내밀었다.

리당일군들이 앞체를 메고 돌격대원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일을 제끼니 관리위원회일군들도 떨쳐나섰다.

리당일군들의 기수적역할은 작업반마다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안아오게 하는 불씨로 되였다. 농업과학기술선전실들이 더 잘 꾸려지고 마을의 살림집들도 새롭게 변모되여갔다.

영농전투에서도 리당일군들은 늘 벌에서 살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높은 알곡생산성과를 안아오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축산기지에서도, 태양열온실과 버섯재배장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일어났다.

이렇게 1년 남짓한 기간에 농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전에서 단숨에 선구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다.

그렇다.

오늘의 시대는 바로 이런 초급당일군들을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1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먼저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묘,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묘에 화환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고 고향집에 들어선 그들은 전시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수수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한평생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겪으시며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를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어 세기를 이어 빛나고있으며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주체혁명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하리라는 확신이 넘쳐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친위전사가 되시여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우리 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렬사릉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형의 당창건위업실현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 혈전만리를 헤치며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무철한 신념의 바통을 이어 우리 당을 영원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기층당조직을 책임진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우리 당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찾은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의 조선청년운동을 개척하시고 청년강국건설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펼쳐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온 겨레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이 깃들어있는 국가선물관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정전혁명사적지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대회참가자들은 자립적국방공업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 탁월한 령군술로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를 때려부시였으며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아로새기신 백두령장들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또한 반제반미계급교양의 거점으로 꾸려진 중앙계급교양관을 돌아보았다.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은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당의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조직을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강력한 전투대오로 튼튼히 다져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 관람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이 22일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를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키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조연준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당, 전군, 전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그처럼 짧은 기간에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여 수령영생위업의 가장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을 모신 화폭들은 대회참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10년, 20년을 단 1년으로 주름잡는 만리마시대, 자강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화위복의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영화는 력사적인 화폭들로 펼쳐보이였다.

영화를 보면서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정치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혁명대오를 향도하는 로숙하고 세련된 우리 당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을 간직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를 다짐하였다.

박봉주총리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기간에도 여러대의 전기기관차를 제작하는 성과를 또다시 이룩하였다.

총리는 기업소의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로동계급의 투쟁을 고무해주었다.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전기기관차를 국내산 자재와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강구되였다.

한편 총리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주체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울린 또 하나의 자랑찬 승전포성

황해남도물길 1단계 건설투쟁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기적변혁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의 서해지구에서 대자연개조의 승전포성이 장쾌하게 터져올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에 따라 대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과 황해남도내 인민들은 자력자강의 힘을 총폭발시켜 황해남도물길 1단계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세세년년 만풍년을 안아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황해남도의 수백리 구간에 대규모자연흐름식관개체계가 형성됨으로써 서해곡창지대의 드넓은 논밭에 물을 충분히 대주어 나라의 알곡생산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해마다 양수동력으로 쓰이던 수천만kWh의 전력과 수많은 양수설비들을 쓰지 않게 되였으며 국토의 면모가 일신되여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였다.

풍요한 대지에 젖줄기마냥 련면히 뻗어나간 황해남도물길 1단계 공사의 완공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 땅우에 뿌려주신 만복의 씨앗이 꽃펴난 또 하나의 풍성한 열매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과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황해남도물길공사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대규모자연흐름식물길건설의 새 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네번째로 진행되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개천—태성호물길과 백마—철산물길, 미루벌물길건설에 이어 황해남도물길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주체100(2011)년 4월과 12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력량과 설비, 자재보장, 돌격대원들의 후방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물길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기 위한 준비전설에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황해남도물길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대비약, 대혁신의 물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뜻을 받들어 2012년 1월 황해남도에 대규모의 자연흐름식관개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물길공사가 착공되였다.

238만여㎥의 암반굴착과 448만여㎥의 토량처리, 13만 8,000여㎥의 콩크리트타입, 400여개소의 물길굴과 물다리, 잠관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건설 등 공사량은 참으로 방대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하는 물길건설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원쑤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였으며 주체조선의 만년재부를 마련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이였다.

물길건설에서 중요한 저수지언제건설전투장에서 기적창조의 물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13만여㎥의 암반을 굴착하고 77만 2,400여㎥의 모래와 자갈을 날과 수백m나 되는 언제를 쌓아야 하는 아름찬 공사였지만 그 누구도 주저와 동요를 꼴랐다.

당원들과 청년들이 앞장에서 사품치는 강물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가물막이언제를 쌓아올렸다. 기계수단을 리용할수 없는 감항판에서도 마대와 질통으로 감항층을 들어내고 함마와 정대로 암반을 까내였다.

평양시려단의 돌격대원들은 2012년 8월말 언제기초굴착전투를 끝낸 기세드높이 언제중심강토와 성토공사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

언제의 높이이자 당을 받드는 충정의 높이라는것을 자각한 돌격대원들은 건설장 곳곳에 나붙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표어들을 신념의 글발로 새겨안고 건설물의 질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건설자들은 물집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손에 붕대를 감아대며 줄기찬 전투를 벌려 2014년 6월 언제중심강토작업을 끝냈다.

돌채취와 운반도 립체적으로 벌어져 5만 8,000여㎥의 장석쌓기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농업성 물길건설관리국 기계화사업소대대의 화물자동차운전사들과 굴착기운전공들도 설비들의 수리정비를 앞세우면서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만가동을 보장하였으며 한㎥ 더 싣기, 한차 더 뛰기운동을 맹렬히 벌려 매일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취수탑기초굴착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낀 돌격대원들도 나무휘틀대신 대형철판휘틀을 제작하여 미끄럼식공법으로 련속타임을 보장하였다.

온 공사장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는 속에 무넘이언제콩크리트타입전투장마다에서 기존공식과 관념들을 깨뜨리는 기적들이 창조되였다.

시련과 난관이 중첩될 때마다 돌격대원들은 서로서로 팔을 끼고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등의 노래를 부르며 불사조와 같이 일떠섰다.

피멍이 든 어깨에 세멘트와 골재를 담은 마대를 지고 수백수천번을 오르내리면서 한m한m 언제를 쌓아온 돌격대원들의 애국의 피와 땀은 무넘이언제에 뜨겁게 슴배여있다.

돌격대원들은 지난 기간 여러 대상건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우리 식 공법들과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여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기일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물되우개식방수로와 무넘이구간의 박토를 리용하는 흙언제시공방법, 새로운 진동다짐방법 등이 창안도입되여 언제의 안정성이 더욱 철저히 보장되고 공사속도가 비상히 높아졌다.

물길굴건설장들에서도 돌격전의 기세찬 함성이 그칠새없이 터져올랐다.

착암기와 권양기, 폭약 등 굴진설비와 자재가 부족하였지만 건설자들은 앉아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정대와 함마로 암반을 까내였으며 정행 및 각추식속빠기발파방법과 새로운 압축기평각수보장방법 등을 창안도입하여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였다.

어렵고 힘든 여러개의 물길굴과 잠관공사를 맡은 자강도려단 돌격대원들은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드센 공격전을 벌려 건설장적으로 제일먼저 도랑을 관통하는 자랑찬 위훈을 떨치였다.

물길굴공사의 마지막전투인 10여m의 붕락구간을 극복하기 위한 평안북도려단 전투원들의 20여일에 걸친 결사전은 물길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위훈을 력사에 새기고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돌사태가 쏟아져내릴지 모르는 붕락구간에 청년들이 용약 뛰여들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어온 청년들은 최악의 조건에서 낮과 밤이 따로없이 함마와 정대로 한치한치 암벽을 까내고 차디찬 석수를 헤치며 한삽한삽 버력을 처리하였다.

백번 무너지면 백번 다시 쌓아서라도 기어이 물길굴을 관통하자는 구호를 웨치며 결사전을 벌린 청년돌격대원들의 희생적인 투쟁은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들어올릴수 있다는 배짱을 지닌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의 참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정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새로운 시대속도를 창조함데 대한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쪼아박고 공사속도를 끊임없이 높여나갔다.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함마와 정대로 드센 공격전을 벌리고 시간당 수십㎥씩 터져나오는 석수와 싸우면서 일정계획보다 3.5배에 달하는 공사속도를 기록하였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도 완공의 날을 부탁한 정치일군, 한몸이 그대로 동발목이 되고 버팀대가 되여 동지들과 귀중한 설비들을 구원하고 한겨울의 차디찬 물속에 뛰여들어 건설전투를 중단없이 벌려온 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것은 오직 하나 당의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불타는 충정이였다.

흙물길건설전투장이 대비약, 대혁신으로 끓어번지였다.

황해남도의 돌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수백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백개의 각종 구조물을 건설하여야 하는 물길공사의 기본전선에서 전격로를 열어나갔다.

살을 에이는 강추위와 찌는듯 한 무더위, 몰아치는 비바람도 아랑곳없이 돌격대원들은 암반과 얼어붙은 진흙땅을 함마로 까고 수십개의 아산들과 봉우리들을 통채로 밀어제끼며 과감한 대자연개조전투의 날과 날들을 위훈으로 아로새기였다.

건설자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으로 자력갱생기지를 그쯘히 갖추어놓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공사성과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당이 안겨준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든 물길건설자들은 조국해방과 당창건 7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 일념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줄기차게 내달리였다.

고속도굴진경기, 저수지언제쌓기경쟁, 공구전시회, 물전기재출통식, 용접공들사이의 경쟁을 비롯하여 온 공사장에 타오른 사회주의경쟁열풍이 물길공사를 더욱 힘있게 추동하였다.

건설자들은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물길건설을 제기일에 완공함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과학기술의 봉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며 전례없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국가과학원 수리해양과학분원 수리공학연구소, 농업성 관개설계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설계가, 료원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대발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공사전기간 250여건의 기술혁신안, 창의고안들이 현장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내였다.

물길굴공사에서 버력운반은 광차를 리용하는것으로만 여기던 기성관념을 깨버리고 화물자동차로 버력을 운반할 착상을 하여 실적을 종전보다 몇배로 올리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무동력삭도와 수동식기중기, 새로운 철관조립용점방법을 창안도입하여 공사속도를 높여나갔으며 조구통을 리용한 혼합물운반방법으로 많은 로력을 절약하였다.

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2015년 한해동안에 5만 5,000여㎥의 물길굴확장과 2만 3,000여㎥의 콩크리트피복공사가 진행되였으며 13개소의 물길굴과 3개소의 물다리, 10여개소의 잠관공사가 완공되였다.

또한 저수지언제성토공사가 기술공정의 요구대로 진행되고 언제, 취수탑, 배수굴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완공의 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려온 황해남도물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더욱 고조되였다.

물길건설자들은 철야진군길에서 철잠판조립공사를 빛나게 결속한것을 비롯하여 공사속도를 지난 시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여 물길공사전역에서 전투과제를 기본적으로 끝냄으로써 총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 영웅적인 헌신과 눈부신 기적창조의 페지들을 아로새기였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심장에 새긴 돌격대원들의 투쟁으로 침수지역 인민들을 위한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솟아났다.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애국위업에 온 나라 근로자들이 뜨거운 마음을 바치였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 철도성, 농업성, 국토환경보호성,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평양승강기공장, 해주강철공장, 해주건설기계공장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련관단위들과 황해남도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며 물길공사를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전국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도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안고 공사장을 찾아와 건설자들과 일도 함께 하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발휘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물길건설자들은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어려차례의 시험통수를 보장하고 어머니당에 완공의 보고를 드리였다.

황해남도물길 1단계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을 또 하나의 자랑찬 현실로 펼쳐놓았으며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결사관철의 의지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충진군대오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만리마시대의 기상을 떨치며 수백리 서해전역에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온 물길건설자들은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하여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에서도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갈 불같은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대진군길에서 만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의 랭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것이다.

주체105(2016)년 12월 20일
평 양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22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농근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불멸의 대강이며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총적목표, 총적투쟁과업으로 틀어쥐고 동맹건설과 활동을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하여 농업근로자동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농근맹, 당의 농근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맹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농근맹조직들을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하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위력한 전투조직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근맹조직들이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김정일애국주의,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높은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참된 농촌혁명가, 애국농민으로 키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발명과 창의고안,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며 근로자들이 농업과학기술과 앞선 영농방법을 잘 알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해나가는 과학농사의 담당자, 주인공이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새시대 지식형의 근로자들로 준비시키며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고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다양하게 벌려 협동법에 투쟁의 노래, 생활의 노래가 울려퍼지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업근로자동맹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과 당의 조국통일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남조선의 진보적농민단체들과의 련대련합, 세계 여러 나라 농민조직들과의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사업체계, 본신임무수행을 첫자리에 놓고 사업을 설계하고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엄격한 규률을 확립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농근맹조직들에서 당의 의도대로 초급단체들을 실속있게 도와주어 모든 초급단체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나가며 농근맹원들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잘하여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는 선진분자, 적극분자로 만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을 화고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옹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영예를 떨친 녀자축구선수들을

축하하는 모임 진행

【평양 1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하고 조국의 영예를 떨친 녀자축구선수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2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와 당부를 가슴마다에 새겨안은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련전련승의 불을 터뜨리며 맞다드는 팀들을 모두 누르고 영예의 우승컵을 들어올림으로써 세계녀자축구계를 다시한번 뒤흔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하여 조국의 기상을 떨친 우리 녀자축구선수단 성원들이 모임장소에 들어서자 청년학생들이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보라를 뿌려주었으며 선수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뜨겁게 환영하였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체육부문의 일군들, 선수, 감독들, 시내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해나가는 첫 진군길에서 청춘의 열정과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며 만리마를 탄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려 어머니조국에 승리의 금메달을 안고 돌아온 녀자축구선수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사변들로 수놓아진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해를 빛나게 장식하며 녀자축구선수들이 이번 경기대회에서 단연 1위를 쟁취한것은 우리 녀자축구의 비약적인 발전모습과 휘황한 전망, 세계를 앞서나가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또 하나의 쾌승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온 행성을 조선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한 자랑찬 승리는 주체의 체육강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어머니당에서 승전의 개가높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을 위해 수도의 거리에 축하의 꽃바다를 펼쳐주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내세워주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준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녀자축구선수들이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심장속에 새겨안고 달려도 세계의 벽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겨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청년학생들은 녀자축구선수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세계를 들었다놓는 기적과 위훈을 다발적, 련발적으로 창조하는 만리마기수가 되며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청년영웅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황영봉책임감독, 최설경선수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 체육인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감독, 선수들이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승의 금메달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나감으로써 세기의 하늘가에 우리의 람홍색봉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려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전투목표를 돌파한 기세로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지난 8월 28일까지 높이 세운 20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점령한 기세를 늦춤이 없이 련속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온 나라를 진감한 북부전선기적에 화답하여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수가 될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공장개건공사에서도 아침과 지녁이 다르게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2월 몸소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 우리 인민들이 다른 나라의것이 아니라 《온하수》상표를 단 우리의 화장품을 먼저 찾게 하고 나아가서는 《온하수》화장품이 세계시장에서도 소문이 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이 사용하는 자그마한 화장품 하나에도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게 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김현, 최성애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그날의 강령적가르치심을 언제나 심장속에 간직하고 200일전투승리의 근본담보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투철한 관점밑에 시작부터 아연지휘판의 자세로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욕이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어 그들이 오늘의 대고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갔다.

공장일군들은 20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면서 개건공사도 동시에 내밀 대담한 목표를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한 일법, 주법전투계획들을 현실성있게 세웠다. 그와 함께 매일 생산총화를 전투적분위기속에서 엄격히 진행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갔다.

이들은 자재보장을 예견성있게 앞세우면서 설비들의 정비보수와 공정별맞물림을 짜고들어 불리한 조건에서도 련일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질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함으로써 생산된 하나하나의 제품에 당의 인민사랑이 그대로 깃들도록 하였다.

《우리는 만리마기수》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는 속에 전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세수비누직장의 종업원들이 주야전투를 벌린 결과 하루생산량이 종전에 비해 근 3배로 뛰여오르고 높이 세운 세수비누생산목표가 기한전에 달성되였다.

화장품직장의 생산자들도 속도와 질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 녀성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으면서도 여러가지 기능과 효과를 잘 나타낼수 있는 제품생산에 자신들의 재끗한 랑심을 바쳐갔다.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200일전투목표를 점령한 이들은 전체 인민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즉시에 피해지역으로 많은 생활용품과 지성어린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었다.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북변땅에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가 창조된 격동적인 현실에 발맞추어 자기들의 일터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현대적인 공장,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완전히 일신시킬 기세드높이 개건전투에서도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심 학 철

독자의 편지

훌륭한 일군들입니다

저의 남편은 군사임무수행중 뜻밖의 일로 부상을 당한 특류영예군인 장윤철입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언제나 희열에 넘쳐 락천적으로 생활하고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여러해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 뜨거운 지성을 기울여온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눈굽이 젖어듭니다.

제가 조성철, 김정철동무를 비롯한 함경남도검찰소 일군들을 알게 된것은 몇해전이였습니다. 뜻밖에 찾아온 그들을 보고 영문을 몰라하자 김정철동무는 얼굴에 웃음을 담고 서로 알고지내자고, 우리는 모두가 한식솔이라고 하면서 가지고온 보약제와 건강식품들을 내놓는것이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들은 병원에서 우연히 본 한 특류영예군인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왔던것입니다.

그때부터 장영일, 주희석, 김명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국가적명절들과 남편의 생일은 물론 여느날에도 때없이 찾아와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늘 보살펴주었습니다.

혁명의 불은 계속 피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기별로 제시되는 당정책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새로 나온 도서들도 안겨주는 그들은 저의 남편에게 있어서 친근한 혁명동지들입니다.

언제인가 저의 집을 찾았던 그들이 다음날로 부뚜막과 구들도 수리해주고 땔감까지 마련해줄 때 저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상처입은 자식을 위해 더 마음을 쓰는 어머니처럼 정법한 한 가정을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뜨겁게 안아봅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충정으로 받들어가는 이런 훌륭한 일군들이 있어 온 나라 대가정에는 혈육의 정이 차넘치고 미덕의 향기가 그토록 진하게 풍기고있는것입니다.

함흥시 성천강구역 성천동
3인민반 김 정 옥

재일본조선인추모대표단이 떠나갔다

오형진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추모대표단이 22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친미보수《정권》의 붕괴와 파멸은 력사의 필연이다

격동과 사변의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다. 하건만 이 시각도 남조선에서는 잠들줄 모르는 초불의 대하가 어둠의 뿌리를 뚫춰내며 더욱 격렬히 타번지고있다.

온 세상을 경악케 한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을 계기로 민심이 지펴올린 초불은 불과 수십일만에 남조선전역을 휩쓰는 전인민적항거의 태풍로 확대되여 천하의 악녀, 민족의 특등제앙거리인 박근혜역도를 탄핵의 심판대에 끌어냈으며 그 더러운 명줄을 끊어버릴 죽음의 올가미를 바싹 조이고있다. 박근혜역도뿐아니라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보수패당도 무섭게 폭발하는 저주와 규탄에 직면하여 풍랑속의 난파선마냥 걷잡을수없이 침몰하고있다.

입만 벌리면 그 무슨 《북붕괴》니 뭐니 하고 기승을 부리던 박근혜패당이 청와대동우리에 앉은채로 날벼락같은 급변사태를 맞게 되였으니 이야말로 력사의 필연이 아닐수 없다.

온 남녘땅을 통채로 뒤흔들어놓고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2016년 남조선각계의 전민항쟁은 과연 무엇을 교훈으로 남기고있는가.

파멸의 씨앗을 잉태한 특등오작품《정권》

오늘 지구상에는 형형색색의 정치제도와 국가정권이 존재하고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도저히 그 류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정치론리가 통할수 없는 희귀한 유형 《정권》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 퀴퀴하고 더러운 내막이 속속 드러나 일파만파의 격랑을 일으키고있는 박근혜-최순실정치추문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가장 비정상적인 산생과정과 해괴하기 그지없는 권력구조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정권》은 태여나기 전부터 불행과 파멸의 씨앗을 잉태하고있던 시대와 력사의 특등오작품이다.

이미 력사의 쓰레기통에 묻혀버렸어야 할 《유신》의 후예이며 그 어떤 정치적자질이나 능력도 없는 박근혜가 남조선에서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데는 실로 기가 막힌 사유가 있다.

원래 저능아인데다가 9살에 애비를 따라 청와대에 들어간 후 제대로 된 교육과 성장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일찌기 광부모가 총탄에 맞아 처참하게 비명횡사하는것까지 목격한 박근혜는 정치인은 고사하고 보통 인간으로서, 정범한 녀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극도의 인격장애자이며 특이한 정신병환자라고 할수 있다. 박근혜의 지능이 얼마나 낮았는가 하는것은 중학교에 진학할 당시 그의 입학시험을 위해 전해까지만 하여도 자연, 사회, 음악, 미술 등 여러 과목이였던 시험제도를 국어와 산수단 두 과목으로 변경시켰으며 다음해부터 다시 시험과목을 원래대로 늘였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잘 알수 있다.

더우기 청와대에서 쫓겨난 후 가족파도 일체 련계를 끊고 은둔생활을 하면서 최대의 사기협잡군들인 최태민일가를 유일한 보호자로 삼고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온 박근혜는 극심한 피해망상증과 물취미에 빠져있던 정신적불구자였다. 오죽하였으면 보수팔통패거리들조차 《대통령이 될수도 없고 되여서도 안될 전형적인 성격장애환자》이고 《신문기사도 리해 못하며 지능이 겨우 말해우는 어린아이수준에 불과한 인물》이라고 비난해나섰겠는가.

하다면 이런 박근혜의 내면을 골라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그를 《대통령》후보로 치켜세우고 청와대안방에 들여앉혔는가. 남조선정치인들을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상상이 들어다보며 떡반죽처럼 마음대로 주물러대는 미국은 과연 무엇때문에 이를 묵인조장하였겠는가.

그들이 박근혜년의 미숙함과 괴벽함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만들수밖에 없었던것은 수구보수떨거지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류다른 간판과 최초의 녀성 《대통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심을 기만하고 친미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이루어보려는 비렬한 정치적야망과 관련되여있다. 극악무도한 매국배족과 부정부패행위로 남조선인민들의 버림을 받으며 급속히 리탈하는 보수지지층을 긁어모을 방법이 더이상 없었던 보수패당으로서는 박근혜의 어지러운 치마자락에라도 필사적으로 매달릴수밖에 없었으며 보수《정권》의 연장을 바라는 미국 역시 이를 은근히 부추기였다.

여기에 집권기간 온갖 악정을 일삼아온것으로 하여 퇴임후 법정에 서야 했던 리명박패당이 저들의 정치적안전에 대한 담보를 흥정물로 삼아 박근혜의 당선을 막후지원하였다. 그들은 어용언론과 보수단체들을 총동원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피뢰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을 내몰아 온갖 모략극을 다 꾸민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대통령》선거의 개표과정까지 조작하였다. 이처럼 천하없이뜨기일지라도 엎글마담으로 일단 들여앉혀놓고 그 배후에서 저마끔 리속을 챙기려는 미국상전과 수구보수세력의 손타에서 박근혜는 세상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하나의 희귀한 《대통령》인형으로 빚어졌던것이다.

하지만 돼지에게 안장을 얹는다고 경마가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제 머리로 사고할줄도 모르고 제손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제발로 걸어가기도 불가능한 박근혜가 복마전같은 남조선정치판을 어떻게 움직일수 있겠는가.

결국 박근혜는 자기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봐준 최태민놈의 딸인 최순실을 신주처럼 모시고 청와대에 《입성》하였으며 그의 조종에 따라 《대통령》카면극에 출연하였다. 헌 《대통령》이 독신인것으로 하여 응당 없어졌어야 할 청와대의 제2부속실이 항간의 일개 아낙네를 보좌하기 위해 빠짓이 존재해왔는가 하면 지어 최순실은 박근혜옆방에 제 침대까지 들여놓고 일당들과 함께 마음대로 드나들며 별의별 추악한짓을 다 저질렀다. 《문고리3인방》이라고 불리운 박근혜의 측근졸개들은 만사를 전짜 《대통령》인 최순실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 결론을 박근혜에게 전달해주는 심부름군에 불과하였으며 모든 관직임명과 정책결정이 최순실의 손끝에서 이루어졌다는 기막힌 사실들을 련거하자면 끝이 없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에서 《헌 정권은 박근혜-최순실공동정권》, 최순실은 《가부장적인 남편》이고 박근혜는 그의 《안해》, 《문고리3인방》은 《사촌》이라는 기상천외한 가제도까지 공공연히 나돌았겠는가. 지금 내외여론은 박근혜가 집권한 기간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사령탑》이 아니라 돈벌이에 미친 박근혜와 최순실에 의해 하나의 《가족기업체》처럼 운영되였으며 이런 원시적인 《공동체》는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인류지성이 우주를 정복하고 물질문명이 최첨단을 돌파하는 21세기에 이처럼 유치하고 우매한 히제비가 권력을 독점하고 변태적이고 해괴망측한 통치를 무려 4년 가까이 지속해왔다는것은 현대정치사의 특종희비극이다.

이렇듯 가장 비정상적이고 말세기적인 붕괴《정권》에 의해 남조선에서 정치는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사회적혼란과 대형참사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으니 오늘과 같은 박근혜패당의 파멸은 예고된 사태였다.

만고죄악으로 앞당겨온 종말

박근혜패당은 집권기간 력대 통치배들을 훨씬 릉가하는 만고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름으로써 제손으로 죽음의 함정을 깊숙이 팠으며 비참한 종말의 시계를 1년이나 앞당겨놓았다. 오늘 남조선 각계층이 박근혜가 집권한 지난 4년간을 되돌아보기조차 끔찍해하며 《〈세월〉호 7시간과 같은 죽음과 악몽의 련속》이였다고 한결같이 치를 떨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박근혜《정권》이 남긴 최대《치적》은 남조선사회를 《유신》독재시대에로 완벽하게 돌려놓은것이다.

물동이라는 비록 현재에 있어도 넘은 아득한 《유신》시대에 두고있는 박근혜는 청와대안방에 들어앉기 바쁘게 제년의 체질에 맞게 피뢰정보원과 법무부, 검찰과 경찰 등 권력의 중추에 《유신》잔당들과 늙다리노복들을 들어앉히고 공안통치, 정보통치, 공포통치를 부활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진도개정신》으로 《원쑤》들의 살점을 물어뜯을 때까지 놓지 말라느니 뭐니 하는 섬뜩한 독설들을 내뱉으며 졸개들을 제년의 통치에 장애로 되는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에로 내몰았다. 진보적이며 합법적인 정당, 로조, 언론들을 강제해산, 폐간시키고 반《정부》적성향의 기미만 보여도 이잡듯 샅샅이 들추며 손과 발을 묶어놓는가 하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여 청화저시위에 나선 주민들마저 경찰깡패들을 내몰아 마구 폭행하다못해 목숨까지 빼앗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외세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고 억집게 놀아댄 반면에 동족파는 피를 물고 대결하면서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극도로 증대시켰것은 천추에 용납 못할 박근혜역도패당의 반민족적죄악이다.

분렬된 민족의 정치인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민족의 운명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감은 있어야 한다. 이때문에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도 북남관계개선에 일말의 관심을 표시하고 대화와 접촉의 길을 열어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던것이다.

하지만 미리끝까지 대결악심만 차있는데다가 돌팔이무당이 불어넣은 《북붕괴》의 망상에 포로된 박근혜역도는 입만 벌리면 《북핵폐기》니, 《인권문제해결》이니 하고 떠들다못해 최순실의 지령대로 개성공업지구까지 폐쇄하여 북남관계의 마지막실오리마저 완전히 끊어버렸다. 지어 카소를 제도 그 무슨 《참수작전》, 《평양초토화》를 떠들어대며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정치군사적도발을 계속해왔다. 허바탕을 도끼날처럼 갈아세우고 《북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모든 제재를 다 취할것》이라느니,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멸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온갖 비방중상과 독설을 뿌려대는가 하면 이 나라, 저 나라로 분주히 찾아가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를 집요하게 구걸하여 내외를 경악케 하였다. 나중에는 별의별 잡쓰레기들을 긁어모아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내몰다못해 해외에서 우리 처녀들을 집단람치해가는 천하의 악귀같은짓도 서슴지 않은 박근혜년이다.

예로부터 피는 피로써 씻기운다고 하였다. 이렇듯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앞에 씻을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지르고도 목숨을 부지할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처럼 미련스러운것은 없을것이다.

그 천하악녀의 손에 자기의 존엄과 운명을 무참히 통락당하며 가만히 죽어갈 남조선인민들이 아니였으며 마침내 분노한 민심이 거대한 초불의 바다가 되여 일떠섰다.

《세월》호에 갇힌 수백의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까이 구원의 손길을 찾을 때 7시간동안이나 안방에 처박혀 쭈그렁박같은 상판을 쓰다듬고 머리채나 올렸다내렸다 하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인간백정을, 남조선사회를 《최순실왕국》으로 전변시키고 인민들의 꿈과 존엄을 짱그리 짓밟은 박근혜역도를 청와대에서 끌어내라는 거세한 함성이 우뢰처럼 터져나왔다.

민심의 분노가 이토록 강렬한줄은 몰랐을것이다. 그 알락한 입술로 구미여우처럼 요설을 뱉으며 유혹하면 개, 돼지처럼 어기는 백성이 온순하게 주저앉을것이라고 박근혜는 오산하였을것이다.

대가를 치를 때가 온다는것을 상상도 못한채 천만가지 죄악을 덧쌓아온 역도년이 지금 제가 싼 똥우에 주저앉은 꼴이 되여 세상의 못매질을 당하며 숨져가고있으니 사필귀정이란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구원의 동아줄은 어디에도 없다

력사를 거슬러보면 남조선에서 보수《정권》들이 그 부패무능함과 반동성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수 있었던것은 미일상전과 보수특권층세력의 전적인 뒤받침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들은 친미보수《정권》이 통치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해준 밑음직한 버팀목이며 절대적구세주였다. 박근혜역도가 이번 특대형추문사건이 터진 이후 오늘까지 제년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면서 뻗치고있는것은 아마도 어디선가 와닿을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하지만 사건이 터진지 두달이 가까워오는 이 순간까지도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박근혜《정권》을 위한 운명의 동아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있다. 이것은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하늘같이 믿고 섬겨온 미국상전은 사건발생초기에 벌써 《누가 이끌어도 친미동맹은 영원할것》이라는 공식립장을 발표하여 박근혜역도와 《리별의 선》을 긋는가 하면 남조선 각계층의 초불투쟁과 《국회》의 탄핵안가결을 방관시하는 태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여 피뢰패당을 더욱더 황급하게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물에 빠진자의 꼭뒤 누르는 격으로 막다른 곤경에 몰린 주구에게 내외의 반발이 극렬한 《싸드》배치를 이미 합의한대로 강행하라고 로골적인 압박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미일상전들이 년을 쓸모없는 골치거리로 부담스럽게 여기며 용도폐기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친하여지리인 박근혜년의 치마바람에 놀아나 대조선정책에서 참담한 실패를 면치 못한채 내외에서 고조되는 비난의 화살을 받고있는 미행정부가 그 분풀이를 청와대마녀에게 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며 악삭바른 일본도 그뒤를 따르고있는것이다.

박근혜패당은 미국상가에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전략적인내》정책에 대한 회의심과 우려, 정책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상전의 발목을 부여잡으며 북이 《붕괴》직전에 이르렀다느니, 절대로 북과 대화해서는 안되며 제재와 압박 등 강경책기조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느니 하고 온갖 악담을 다 늘어놓아왔다. 그러나 마녀의 유혹에 홀린 미국이 《고강도제재》요, 《북수뇌부제거》요 하며 어리석고 무분별한 반공화국압박소동에 매달려있는 동안 우리 공화국은 내외가 공인하는 세계적군사강국의 반렬에 당당히 올라섰다.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최첨단전략핵타격수단들을 보유한 동방의 신성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새로운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야망을 파산에로 몰아넣고있으며 미국본토에 대한 실질적인 핵공격위협은 현실로 되고있다.

저들의 비리성적이고 무지몽매한 대조선강경일변도가 북을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떠밀어준 원동력이였다는 세계의 일치한 평가앞에서 미국의 수치감과 분노가 어디로 향하였겠는가. 더우기 박근혜의 모든것을 조종한것은 사이비무당 최순실이며 결국 미국도 그의 손바닥에서 놀아났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를 자인할수밖에 없는 오바마는 아마도 제손으로 제뺨을 때리고싶은 심정일것이다.

주구를 수족처럼 부려먹다가도 쓸모가 없어지면 단호히 처리해버리는것이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삽시간에 통치자로부터 범죄자로 뒤바뀐 박근혜의 비참한 최지를 두고 이번 사태발생의 배후에 화근덩어리인 박근혜를 미리 제거하려는 미국의 검은 손길이 있다는 말이 나돌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이런 심정은 비단 상전론이 아닐것이다. 파두각시에 불과한 박근혜를 상대로 그 무슨 《정상회담》이니, 협정체결이니 하며 가소롭게 맞장구를 치고 《대북공조》를 언약했던 적지 않은 나라들도 아연함과 치욕에 몸을 떨고있을것이다. 어리석고 부실한 촌아낙네들에게 휘둘려 그들의 각본대로 《북인권》을 걸고들며 제재압박의 범안들을 형형색색으로 고안해냈던 유엔기구도, 그 하수인들도 저들의 우매함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통절히 반성해야 하며 응당한 수치를 느껴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이였던 보수언론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 《새누리당》과 적지 않은 보수지지자들까지도 반박근혜전선에 가담하고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앞을 다투어 박근혜와 최순실의 어지러운 걸탁판계를 밑바닥까지 파헤치고있으며 피뢰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도 특대형정치추문사건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특별수사, 탄핵심판에 박차를 가하면서 박근혜역도를 공격하고있다.

《박근혜친위정당》으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아왔던 《새누리당》내에서도 박근혜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터져나오고 적지 않은 친박계인물들까지 《국회》에서 탄핵안가결에 찬성표를 던져 세상을 놀래웠다.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듯 한 오로라(극광)를 지닌 대통령》이니 뭐니 하고 박근혜역도를 미화하며 왕벌모시듯 하던 보수기득권세력이 이처럼 돌변해나선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청와대를 통채로 휩싸안으며 무섭게 타오르는 전인민적항쟁의 불길에 급함대로 급해맞아 박근혜를 제물로 바쳐서라도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준엄한 심판의 화살이 저들에게 쏠리는것을 막아보려는데 있다.

제 치지가 얼마나 가긍스러웠으면 랭혈한으로 소문난 박근혜년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 《피눈물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가슴을 치며 하소연하였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동서남북을 돌아보며 빌어보아야 역도년을 위한 구원의 손길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죽음으로 력사와 민족앞에 지지른 만고죄악을 속죄하라는것이 남조선민심이 내린 최종선고이다.

민의를 짓밟는 반역정치의 파멸은 필연

소용돌이치는 남조선정치정세는 지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있다.

불의를 용납치 않으며 부조리하고 썩어빠진 사회를 변혁하려는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은 박근혜역도의 자진사퇴로 명, 《국회》의 탄핵결정과 같은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있으며 헌 《정권》은 이미 민심의 바다에 수장되였다. 지난 수십년동안 남조선에서 파쑈독재자들을 반대하는 수많은 항쟁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이번처럼 지역과 년령, 진보와 보수, 계급과 계층을 초월한 수백만 대중이 스스로 초불을 밝혀들고 완강한 투쟁으로 보수집권세력을 궁지에 몰아넣은적은 일찌기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안방에 들어박힌 박근혜역도는 메아리처 울리는 각계층의 준엄한 최진명령에는 귀를 틀어막고 오직 더러운 목숨을 하루 한시간이라도 더 연장해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있다.

악질보수분자들로 무어진 법률대리인단을 내세워 제년은 아무런 죄도 없다고 다시 뻗쳐대면서 《국회》의 탄핵결정을 기각시킬것을 변변스럽게 요구하는가 하면 최순실년도 입을 맞춘듯이 재판정에 끌려나와 모든 죄과를 부정하며 오만하게 놀아대여 세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그동안 초불의 힘에 눌리워 숨죽이고있던 친미보수세력들도 머리를 쳐들고 반격의 칼을 벼려고있다.

《대통령》대리노릇을 하는 피뢰총리를 비롯한 탕국것들은 현일 《북도발가능성》이니, 《안보불안상황》이니, 《종북세력의 배후조종》이니 하고 떠들며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가 하면 극우깡패들은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라는것까지 내오고 《탄핵무효》와 《파과철결》을 주장해나서고있다.

이것은 박근혜의 종말에서 저들의 파멸적운명을 예감하고있는 친미보수세력이 불리하게 번져지는 대세의 흐름을 어떻게 하나 되돌려세우고 정치적기득권을 유지해보려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헌 사태의 본질과 근원을 두시해보면 앞으로의 전망은 불보듯 명백하다.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이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정치태풍으로 번져진 원인이 그 결과를 그대로 밝혀주고있다.

피말리는 생존경쟁에 지친 수백만의 각계각층이 두달이 되여오도록 한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광장으로 매일같이 떨쳐나서도록 한 기폭제는 다름아닌 청와대와 친미보수패당이다.

그동안 보수반동《권》하에서 쌓일대로 쌓여온 민심의 분노와 원한은 극한점에 이르렀으며 이번 정치추문사건을 계기로 그 분노와 원한은 화약고에 불달리듯 한꺼번에 폭발하고있다.

외세에 빌붙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고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생존권과 존엄을 참혹하게 짓밟아온 친미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썩을대로 썩은 정치풍토를 갈아엎을수 없으며 자신들의 인생에도 영원히 광명이 비쳐들수 없다는것을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너무나도 사무치게 절감하고있다.

박근혜, 최순실같은 비루한 좀벌레들을 잡아없애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구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식민지통치제도를 밑뿌리채 갈아엎으며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의 모든 악폐를 청산함으로써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세상을 안아오려는 열망은 너무나 강렬하다.

《박근혜와 부역자들을 감옥으로!》

《청소년이 앞장서서 렐조선을 갈아엎자!》

《새누리당 해체하고 재벌을 숙청하며 특권무패 청산하자!》

《우리의 초불은 꺼지지 않는다. 우리의 손으로 국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만들자!》

이 시각도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스스로 울려퍼지는 우렁찬 이 모든 함성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의로운 지향과 념원을 끝까지 거역하려 한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는 단호한 결심, 투쟁의 채찍을 반동통치배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길 비상한 각성과 의지의 선언이다.

민심의 목소리를 거역하는자에게는 살길이 없으며 누구든지 정략적야심과 사리사욕을 앞세워 함부로 경거망동한다면 반드시 박근혜일당과 함께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히게 되리라는것은 자명하다.

민족반역과 반인민적악정을 일삼으며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덧쌓아온 박근혜《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안긴 오늘의 초불혁명은 남조선정치의 근본적변혁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이어질것이다.

이것은 부인할수 없는 력사의 필연이다.

인민이 지지하고 따르는것이 정의이고 승리이다.

민심을 거역하고 짓밟는자는 거필코 멸망하기마련이다.

이것이 평양이 뚜렷하고 만단사연으로 가득찬 뜻깊은 2016년이 력사에 다시한번 새겨주는 철의 진리이며 엄숙한 교훈이다.

최 문 일

과학농사로 담보한 알곡증산

배천군에 파견된 황해남도 농업부문 과학자들의 사업을 놓고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배천군에서 최고수확년도보다 수천t의 알곡을 더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그 비결의 하나는 황해남도 농업부문 과학자들이 군의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해준데 있다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배천군에 파견된 황해남도 농업부문 과학자들이 중시한것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최근년간 품을 들여 연구한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들을 현실에 받아들이게 한것이다.

이삭수형품종으로부터 이삭무게형품종으로 전환하고 그에 맞게 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도록 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인 사실을 놓고볼수 있다.

원래 배천군에서는 추락현상이 심한것으로 하여 이삭수형품종으로 정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정보당 알곡생산은 높지 못하였다. 종전의 농사방법에 종지부를 찍은것이 2014년부터였다. 그때 군에 파견된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과학자들은 군일군들과의 련계밑에 영양단지모를 소식재배방법으로 내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결과 군에서는 최고수확년도보다 7 000여t의 알곡을 더 생산하였다.

하지만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떨쳐나선 과학자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김제원해주농업대학과 농업과학원 황해남도분원의 과학자들은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 이삭아지수가 많은 포전보다 이삭아지수는 적지만 이삭당 알수가 많은 포전의 수확고가 더 높은 사실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결과 이런 결론이 떨어졌다. 이삭무게형품종의 종자를 받아들이고 배모를 2014년보다 10~15일 더 키우며 정당 포기수는 포전들의 특성에 따라 더 줄이자. 그리고 영양생장기간에는 비료를 적게 주자. 이 기간에 비료를 많이 주면 이삭수는 늘어나지만 이삭당 알수는 적어진다. 그대신 생식생장기에 들어가는 시기에 비료를 많이 주면 이삭당 알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이삭당 알수가 많아져 정보당 수확고가 더 올라간다.

알곡생산을 더 늘일수 있는 과학적인 담보를 찾아낸 과학자들은 군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수북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농장들에서 이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때 과학자들이 잘한것은 포전들의 지력에 따라 상으로 정한 포전에는 정당 40포기, 중으로 정한 포전에는 50포기, 하로 정한 포전에는 60포기씩 내고 벼가 생식생장기에 들어가는 시기에 비료계를 리용하여 질이 훨씬히 담보되는 흙보산비료를 덧비료로 주도록 한것이다.

흙보산비료에서 기본은 후민산함량이다. 따라서 후민산함량에 의해 논벼의 생육이 좋아질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기간에는 흙보산비료의 질을 눈짐작으로 평가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김제원해주농업대학 작물재배연구소 리용호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비색계를 만들어 리용하기로 하였다. 이때 그들은 자그마한 용기에 흙보산비료를 담고 물을 부은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그 물을 시험관에 넣었다. 그리고 시험관에 넣은 물을 비색계와 대조해보면서 후민산함량을 분석한에 기초하여 흙보산비료의 질을 평가하였다. 이때부터 농장원들은 흙보산비료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보다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결과 모든 농장들에서 논벼가 생식생장기에 들어가는 시기에 질이 담보되는 흙보산비료를 주었다.

군에 파견된 과학자들이 또 한가지 잘한것은 고온피해를 줄여 알곡증수의 담보를 마련한것이다.

올해는 8월초부터 례년에 보기 드문 이상고온현상이 나타나면서 키온이 정년보다 더 높아졌다. 따라서 농장마다 물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졌다. 하지만 물이 제한되여 호름식물대기를 할수 없었다. 결과 낮시간에는 물온도가 대기온도보다 2~3℃ 더 높아졌다. 특히 밤에도 물온도가 빨리 내려가지 않았다.

이 문제를 놓고 농업과학원 황해남도분원 실장 조덕선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수원농장 제9작업반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며 시험을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은 물이 제한된 조건에서 고온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완성하여 모든 작업반들에서 받아들이도록 기술지도를 심화시켜나갔다.

이와 함께 과학자들은 모든 농장들에서 김제원해주농업대학 박사원생 민경수동무가 새로 연구한 식물성농약을 받아들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도록 하였다. 한편 김제원해주농업대학 농기계연구소 량주현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지난 시기 탈곡기보다 능력이 훨씬 높은 새형의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연구제작하여 여러 농장들에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결과 군에서는 올해에 최고수확년도보다 수천t의 알곡을 더 생산하였을뿐아니라 남알떨기도 지난 시기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절속하였다.

하기에 배천군의 농사경험을 놓고 일군들은 알곡증산의 비결은 과학농사에 있으며 여기서 농업부문 과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돌보이는 모습

도관봉구역상하수도관리소 로동자 리원일동무

우리 인민들속에는 당과 조국,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의 훌륭한 풍모를 우리는 도관봉구역상하수도관리소 로동자 리원일동무에게서도 찾아보게 된다.

지난 9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승리에로 부른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은 리원일동무는 생각이 깊었다. 당중앙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산악같이 떨쳐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는 사람들, 그 애국의 대하속에 자기의 마음도 합치고싶었다.

지난 시기 전정로병들과 작업반의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리원일동무는 성의껏 마련한 내의와 신발, 솜옷을 비롯한 35종에 50점의 생활용품들과 적지 않은 량의 자금을 가지고 당조직을 찾아갔다. 그 한점한점의 지원물자에 깃든 사연을 알게 된 이곳 초급당일군의 마음은 뜨거웠다.

하지만 리원일동무는 북부피해지역에 지원물자를 보내는것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한것만 같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리하여 얼마후에는 관리소의 홍경주, 리은광, 림철룡, 한남옥동무들과 함께 구역돌격대에 탄원하여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달려나갔으며 무산군 민봉리의 살림집건설과 도로공사, 중소하천공사에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순간순간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의 대풍모는 더 높이 발양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반제자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희세의 정치가, 불세출의 대성인

캄보쟈국왕과 대왕후가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로돔 모니니에트 시하누크가 19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대원수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국왕과 대왕후의 위임에 따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각하회고 캄보쟈위원회 위원장인 공쌈을 왕궁담당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왕국정부 왕궁성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단장은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노로돔 시하누크대왕께하와 캄보쟈인민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잊지 못할 은인들이시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숭고한 위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꾸바인사들 우리 나라 대사관 방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꾸바인사들이 16일 꾸바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글라디스 마리아 베헤라노 뽀르텔라 국가리사회 부위원장 겸 총검열위원회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국제비서 호세 라몬 발라게르, 외무성 부상 로헬리오 씨에라 디아스가 꾸바인민과 공산당, 정부의 명의로 된 대형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김정일동지께 꾸바 인민, 공산당, 정부의 이름으로》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국가리사회 부위원장 겸 총검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와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그분들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은 조선인민과 꾸바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시고 발전시켜오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부쓰통지의 깊은 관심속에 더욱 강화될것이다.

국제무대에서 꾸바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는 조선의 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인사를 보낸다.

당중앙위원회 국제비서는 조선인민과 꾸바인민은 부닥치는 난관과 도전을 짓부시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선대수령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꾸바당과 정부,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의 당과 정부,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회고모임, 좌담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이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로씨야련방공산당 부라쩨야공화국위원회, 로씨야주제사상연구협회에서 7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령도로 조선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다지시였으며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그이의 헌신의 자욱은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높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해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인류자주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추켜드시고 김정일동지께서 휘날려오신 승리의 붉은기는 오늘 조선에서 더욱 힘차게 나붓기고있다.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진보적인류는 조선인민과 함께 위인의 고귀한 생애를 가슴뜨겁게 회고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신 비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에 특출한 공적을 쌓으신 위대한분이시다.

그이께서는 김일성동지와 함께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가고계신다.

그이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로씨야련방공산당 부라쩨야공화국위원회 비서는 김정일동지의 서거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실로 된다, 그이께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전을 물리치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세계정치사의 기적이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주제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시고 조선을 강성번영에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나날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 희세의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시였다.

그이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조선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동지는 20세기를 아니라 21세기의 걸출한 위인이시다.

로씨야주제사상연구협회에서 진행된 회고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만마, 인디아, 말레이시아에서 8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좌담회가 진행되였다.

좌담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는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은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진 정치사상강국으로, 외부세력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나가는 군사강국으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전변되였다.

김정일각하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인디아민족대회당 총비서,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비서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정일각하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업적은 길이 빛나고있다, 그이께서 정립하신 선군정치리론은 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압살책동이 날로 로골화되는 현정세하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게 하는 백승의 기치로 되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총진군을 이끌어나가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말레이시아준비위원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이 김정일각하를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을 뿌리던 때로부터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를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있으며 끝없이 그리워하고있다.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신문, 통신, 방송들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캄보쟈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1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였다.

신문 《노코르 톰 데일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각하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생애의 마지막 나날에도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데 대해 지적하고 한생을 순결하게 사신 김정일대원수각하의 고결한 생애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까쩨통신은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만년토대인 질세위인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 선군령도업적을 찬양하고 조선인민은 김정일령도자를 영원한 수령으로 길이 모시고있다고 전하였다.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을 희세의 정치가, 비범한 령장, 다재다능한 령도자, 불세출의 대성인으로 높이 칭송한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의 반향을 소개하였다.

국가라지오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들은 조선인민의 앞길을 밝혀주는 기치로 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은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조국번영의 억년기틀을 마련해놓으시였다.

암싸라라지오방송, 에프엠 90.5방송도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한생을 격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인터네트홈페지들이 특집하였다.

네팔신문 《아르관》 9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우리 인민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길이 칭송되시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이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내용을 올렸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네트신문 《르몰》 6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서거 5년,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김정일각하》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서거하신지 5년이 되였지만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리론들이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변의 기치로 되고있는데 대해 서술하였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포크》 8일부는 《김정일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탁월한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절세위인의 고매한 풍모에 감복하여 여러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의 심장의 토로를 전하였다.

인디아신문 《어웨이킹》 9일부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치시여》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이 나라 신문 《뉴델리타임스》 2일부는 《조선의 자강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민이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게 하는 백승의 보검인 자강력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정치난쟁이들의 용납 못할 호전적망발

일본반동들이 대조선침략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얼마전 일본외무성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조선반도유사시 남조선의 《요청》이 있거나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는것이 확증되면 《집단적자위권》을 발동해 우리 공화국을 공격할수 있다고 주제넘게 떠들어댔다.

대조선침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정치난쟁이들의 용납 못할 호전적망발이다.

일본반동들이 남조선의 《요청》이요, 일본의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요 뭐요 하는것은 재침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지난 세기에 이루지 못한 아시아지배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은 사무라이후예들의 변함없는 기도이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반테로전》을 재침야망을 실현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긴 일본반동들은 《테로위협에 대한 대응》을 안보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공격형의 군사전략을 짰다. 《자위대》를 해외군사작전을 주요사명으로 하는 완전한 공격형무력으로 전환시키고 그에 맞는 작전지휘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일본은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이전에는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던 선제공격론을 공개적으로 제창하고있다. 이것을 보면 일본반동들이 얼마나 오만해지고 무분별해졌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일본반동들속에서 호전적망발들이 거리낌없이 튀여나오고있는것은 저들의 군사적능력에 대한 과신으로부터 솟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자위대》의 작전령역에서 지리적제한은 완전히 없어졌다. 현재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세계 그 어느곳에든지 《자위대》무력을 들이밀려고 무분별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대륙침략의 첫걸음을 조선에서 떼려 하고있다.

일본은 평전종식후 무력태비를 쏘련을 겨냥했던 북방중시로부터 서부중시로 바꾸었다. 후가이도에 집중배치되였던 《자위대》무력은 우리 나라와 가까운 서부일본지역에 재배치되여 조선반도를 노려고있다. 조상들의 본을 따서 조선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타고앉을 야심을 품고있는 일본반동들은 각급 군사학교들에서 조선어를 의무과목으로 제정하는 한편 우리 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별의별 명목의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현시기 일본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군국주의망동은 일제가 《동방의 명주》로 군림하였다며 침략의 칼을 휘둘러 대를 련상케 한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대조선침략야망을 남조선괴뢰들을 리용하여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에 푹 빠져있는 괴뢰들이 미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등에 업고 동족을 어째보려는 개꿈을 꾸고있다는것은 이미 알려져있다. 우리를 해칠수만 있다면 온 강토를 외세의 군사기지로 내맡겨도 무방하다는것이 남조선괴뢰들의 속심이다.

일본반동들은 괴뢰들을 우리와의 대결에로 내몰아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게 하고 그것을 구실로 조선반도재침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다. 일본군부우두머리들은 남조선에 빈질나게 기어들어 괴뢰들과 불순한 반공화국대결모의판을 벌려놓고있다. 또한 일본은 남조선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국방당국간 직통전화증설, 군사훈련참관, 항공기와 함선들의 호상방문과 같은 군사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해나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의 악순환이 지속되여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달아올라 전쟁으로 번져지기를 학수고대하고있다. 그들이 허구적인 《위협》타령을 불어대며 재침책동을 정당화, 합법화하려고 해도 저들의 범죄적목적은 감출수 없다.

조선반도유사시를 운운하며 《집단적자위권》의 명목밑에 《자위대》의 파견을 떠드는것은 조선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있는 자들만이 할수 있는 망발이다. 일본반동들이 남조선괴뢰들의 《요청》을 운운하는것은 지난날 《거류민보호》를 구실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던 일제의 침략수법그대로이다.

군국주의일본은 재침열에 들떠 심히 오산하고있다.

지금은 일본이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남의 땅을 강탈하고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마음대로 침략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우리 공화국은 당당한 핵보유국,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일본의 만고죄악을 끝까지 결산하고 쌓이고쌓인 민족의 한을 기어이 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이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으로 일본이 무모하게 재침의 길에 나선다면 차례질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다.

리 현 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약법규국장 담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사촉하여 또다시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전례없는 제재속에서도 혁강국, 우주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에게는 유엔제재이든 단독제재이든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321호를 적법성을 상실한 범죄적문서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권리의 행사로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과 무분별한 제재소동에 대처한 실제적대응조치이며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여있다는 우리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유엔헌장 제51조 《자위권》과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조에는 매개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헌장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불간섭선언 등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걸고들면서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매여달리고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목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270호를 조작해낸데 이어 이번에는 인민생활과 관련된 경제활동은 례외라고 하던 지난 시기의 위선적허울마저 집어던지고 우리의 무역과 과학기술협조는 물론 해상통로를 전면차단하는 봉쇄형 《제재결의》를 날조해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제39차회의 결의 《침략에 관한 정의》에는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유엔국제법위원회도 이미 이라크와 리비아에 가한 제재가 이 나라 인민들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인질로 삼는 행위로 락인하고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가 제정한 원칙에 따라 반인륜범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바 있다.

결국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반인륜범죄이다.

아시아, 아프리카범블럭상기구와 아랍법률가동맹은 유엔의 봉쇄형제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대표한다는 몇몇 나라가 세계정화와 안전의 이름으로 감행하는 전쟁의 한 형태로서 제재 그자체가 대량살륙무기라고 규탄하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로 인해 간신히 남아있던 조선정전협정의 마지막조항인 해상봉쇄금지에 관한 조항까지 말끔히 날아난것이다.

조선정전협정 제2조 15항은 《본 정전협정은 적대쌍방의 일체 해상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조선륙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라고 되여있다.

전쟁과 무장충돌방지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이 완전히 사멸되고 선전포고행위나 다름이 없는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로 조선반도에서 이제 남은것은 오직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뿐이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여 《제재결의》조작에 가담한 나라들은 이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버리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우리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과감히 나아갈것이다.

주체105(2016)년 12월 22일
평 양

《대통령》흉내를 내는 괴뢰국무총리를 비난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통령》흉내내기에 미쳐돌아치는 괴뢰국무총리를 비난하였다.

그는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흉내내기에 어념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에 맞게 처신할것을 요구하였다.

황교안이 《싸드》배치문제,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와 같이 민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각종 사대매국정책들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투쟁에 합세해나서는 종교계

최근 남조선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박근혜퇴진투쟁에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합세해나서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처음에는 개별적인 종교단체별로 진행되던 투쟁이 점차 하나의 목적에 기초한 종교단체들의 공동행동으로 강화되고있는것이다.

지난 11월에 박근혜퇴진 5대종단운동본부가 결성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단체는 모든 종교단체들, 광심세력과 련대하여 현 《정권》에 단호히 저항할것이라는 강경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시국선언문을 통해 5대종단 종교인들이 련대련합하여 불의가 판을 치는 오늘의 독재시대를 끝장낼 의지를 피력하였다.

전주교구에서 시작된 시국미사운동은 대전교구에 이어 인천, 부산, 서울 등 전지역적인 규모로 확대되였다. 그들은 박근혜역도의 즉각퇴진은 물론 당국이 북남관계개선과 개성공업지구운영의 재개에 나서며 《싸드》배치소동을 중지하고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전면폐기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것을 요구하였다.

박근혜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하루전인 지난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그리스도교인들은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인 처사들에 대해 규탄하면서 괴뢰역도가 민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즉각퇴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지난 9일 괴뢰국회에서 박근혜탄핵안이 가결된것을 남조선의 종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였다.

박근혜탄핵안의 압도적인 가결에 대해 남조선의 《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기독교장로회》, 교회련합, 교회언론회 등 종교단체들은 탄핵안의 《국회》통과는 곧 민중의 승리, 촛불의 승리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은 박근혜즉각퇴진으로 향한 민중의 뜻을 따라 하루속히 진행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종교단체들은 박근혜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박근혜즉각퇴진과 《새누리당》해체구호를 들고 각계 단체들과 함께 련대투쟁을 계속 벌려나가고있다.

《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는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그것으로 탄핵일정이 모두 끝난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민중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여 목소리를 낼것이라고 밝혔다.

불교 조계종은 론평을 통해 박근혜탄핵안의 통과는 민중의 준엄한 심판이며 민중의 힘에 의한 력사적결과물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민중을 위한 력사적결정을 내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남조선종교계는 박근혜역도의 알잡이인 괴뢰국무총리 황교안의 사퇴까지 요구해나섰다. 지난 19일 《박근혜퇴진기독교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은 《국정》총단을 비호하고 방조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즉각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남조선종교인들은 반역의 무리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항거의 촛불을 높이 추켜들고있다. 그들이 지피는 촛불은 박근혜역도가 청와대안방에서 쫓겨날 때까지 꺼지지도 수그러들지도 않을것이다.

김 충 성

분노한 촛불민심의 경고

박근혜탄핵안이 괴뢰국회에서 통과된것은 역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된다.

탄핵안의 통과후 여론의 관심은 괴뢰헌법재판소의 탄핵안심리와 특검수사에 쏠리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헌법재판소》와 특별검사가 박근혜역도를 빠른 시일안에 법적심판대에 올려세워 단호히 징벌할것을 한결같이 요구하면서 엄한 시선으로 주시하고있다. 촛불집회참가자들은 박근혜가 아직도 민심을 기억하며 청와대안방에서 권력복귀의 기회를 엿보고있다고 하면서 《좌두각시가 물러날 때까지 촛불을 놓지 않을것이다.》, 《(헌법재판소)판결을 지켜볼것이다.》라고 웨치고있다. 남조선의 도처에 펼쳐지는 촛불집회장들마다에는 역도의 퇴진과 괴뢰헌법재판소의 판결, 특별검사의 수사를 똑똑히 지켜볼 민심의 의지를 반영한 커다란 눈동자를 그린 선전물들이 등장하고있다.

이런 속에 탄핵리유를 전면부인하는 답변서를 괴뢰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근혜역도의 후안무치한 망동은 남조선 각계의 분노심을 더욱 폭발시키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괴뢰역도의 오만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청와대좌두각시의 장단에 놀아난것을 반성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안의 신속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만고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역도에게 응당한 징벌을 가하려는 남조선민심의 지향과 의지는 날을 따라 더욱 강해지고있다. 박근혜탄핵안이 괴뢰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도 식을줄 모르고 더 세차게 폭발하는 촛불열기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촛불집회참가자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웨치면서 박근혜퇴진투쟁의 도수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80여개 지역에서 벌어진 8차 범국민행동에서 인민들은 분노의 촛불을 추켜들고 박근혜역도의 심복인 괴뢰국무총리 황교안의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결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파쑈경찰이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였지만 참가자들은 그에는 아랑곳없이 특대형범죄의 원흉인 박근혜를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100m앞까지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헌법재판소》와 특별검사가 분노한 인민들의 웨침에 귀를 기울이고 박근혜퇴진여론에 합세해나서야 한다는것이 촛불민심의 요구이다.

지난 시기 괴뢰헌법재판소는 박근혜역도와 보수집권세력의 장단에 놀아나면서 《정권》안보의 도구가 되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파쑈적망동을 부림으로써 남조선인민들앞에 커다란 죄악을 저질렀다. 통합진보당이 《종북》정당의 감투를 쓰고 강제해산당한 사건과 《전교조》가 합법적로조단체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부당한 판결을 받은 사실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재판관의 태다수가 보수적인물들로 되여있는 괴뢰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시대의 요구와 민심의 지향에 역행해나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함정을 파는 멍텅구리짓으로 될것이다.

지금 괴뢰헌법재판소측은 다른 사건들에 대한 심리를 보류하고 탄핵안심리에 집중할것이라고 하면서도 《충분히 검토》할것이라느니, 《시일이 걸린다.》느니 하며 남조선 각계의 신속한 탄핵결정요구에 배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박근혜역도가 이미 자기의 변호인단을 보수적인 인물들로 보강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심리에 대응해나서고있는 조건에서 《헌법재판소》측이 촛불민심을 따르지 않고 요그랑수를 쓰는것은 절대로 묵과할수 없는 사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들이대고있다. 남조선에서의 지난 특검실례를 보면 정치적리해관계에 따라 집권계층의 범죄사건들을 온전히 파헤치지 않고 호지부지해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 특별검사가 박근혜에 대한 강제수사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고있지만 남조선여론은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있다.

남조선의 촛불민심은 《헌법재판소》와 특별검사가 권력에 아부하며 또다시 죄악의 전철을 밟는것을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

《끝까지 지켜볼것이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와 특별검사에 대한 촛불민심의 경고이다.

최 진 향

7-612059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